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루게 제23366호】 주체100(2011)년 2월 18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팔레스티나인사와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주체 팔레스티나인사와 무스타파 알 짜파라니와 그의 딸 진달라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 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들을

### 여러 나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에 대한 헌장》을 기네 라 솔리다리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에 대한 헌장》을 기네 라 솔리다리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10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주체사상연구 기네라국위원회, 기네라출판사 인사들과 군중이 발행식에 참가하였다.

기네라 솔리다리떼출판사 사장 이사가 바는 발행식에서 연설에서 2월의 명절에 맞으며 절세의 위인의 고전적로작을 발행하게 되는 것은 기네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시는 김일성동지의 당면도업적을 잘 알게 하는데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이야말로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적발전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진보적나라 정당

##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는 반제자주위업의 필승의 무기

###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스위스, 브라질에서는 집회와 영화감상회가, 나이지리아에서는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가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에는 스위스 레인공산당, 레인공산주의 청년동맹, 브라질 쌀파 까따리나주 서부지역도시협회 지역발전협회, 사베요종합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고려의학센터, 데올라제고에피복회사, 프라노노만국제주식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오늘의 평양》, 《강성대국의 불보라》, 《주체사상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스위스 레인공산당 비서 마찌미리야노 아이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로작을 통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조선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동지께서 펼치시는 혁명적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스위스 레인공산당은 앞으로 조선인민의 정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브라질 쌀파 까따리나주 서부지역도시협회 지역발전협회 국장 마를레타 무니스 데 알바라는 세게 진보적인민들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되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자

##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자

### 전투장마다에 차넘치는 청춘의 기상 고속도굴진으로 많은 채탄장 마련

#### 각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대중운동 활발히 진행 석탄공업성 아래 탄광들에서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적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각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대고조진군에로 청년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들적대운동을 비롯한 청년대중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합니다.》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경공업부문과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인민생활향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청년들을 적극 앞장세우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 있다. 김책철련합기업소 청년동맹조직에서는 지난 1월 보름기간에 200여명의 청년들로 청년들적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대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철강제

별공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 가치를 대성실들을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청년들적대운동을 조직하고 15종에 500여명의 작업공수들과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결과 대성건설에 펼쳐나선 1000여명의 청년들적대원들이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단 며칠동안에 4600여㎡의 비력을 처리하여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하였다. 함경북도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도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도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목표를 차지하는 대성실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청년들적대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장투마다에서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의 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새로운 기적과 위업을 창조해나가고자 하기 위한 대중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본사기자 활철음

## 김철소적 선철생산 1.5배이상 달성

김철의 로동계급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기업소에서는 2월에 들어와 보름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이상 달하는 높은 선철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을 안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해내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라.》 위대한 장군님의 지난해 12월 현지말씀과 새해공동사설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 1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뜻깊은 2월에도 생산돌격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참모부의 일군들은 중심고리를 틀어주고 대담한 작전과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리,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전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 단위의 생산은 자기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맞받아나가는 공격적신으로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직장의 로동계급은 전적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소하듯 생산물의 량과 질을 높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혁신의 불길은 보장부문에서도 타고르고 있다. 판수송사업소, 소걸 1, 2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주체기업의 위력적이며 지식경제시대 표본공장으로 일떠선 최첨단자기계종합공장 본사기자 김홍준 찍음









